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종교를 다루는
두 번째 파트로

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합니다.

유교를 '하늘과 인간의 종교'라고
정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유교라는 말 자체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죠.

그리고 유교를 사실
종교로 다루는 게 맞느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도 제기될 수 있겠는데

여하튼 그 물음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유교에 관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유교는 외국 사람들에게
영어로 소개가 될 때

컨퓨셔니즘(**Confucianism**)이라고
부릅니다.

컨퓨셔니즘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컨퓨셔스(**Confucius**)라고 하는, 공자죠.

공자의 영어식 표기인데

'공자의 가르침에서 시작된 종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자, <논어>에 저술한
아주 유교, 유학의 시조인데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제가 10분 남짓의 짧은 시간에
다 정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천성을
옳게 타고난다.

그다음에 천성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하늘의 성정을 인간이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하는

존재론적인 이해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런데 이 천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실 세계에서 훼손되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부단히 갈고 닦는
수양의 노력을 기울여야지

소위 성인(聖人)이라고
말하는 바람직한,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천성을 어떻게
갈고 닦느냐에 따라

애기들이 아주 다양하게
전개가 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천성 자체가
올바르게 타고났다'는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는
유교적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소위 맹자를 위시한
'성선설'에 전통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천성을 타고났지만
이 천성을 있는 그대로

바람직한 형태로 드러낸다는 일 자체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인간의 품성 자체가

'애초부터 선하지
않다고 보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예(禮)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유교적인 수양을 통해서

이 천성을 올바르게 표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해서

소위 우리가 '성악설'이라고도
부르기는 하는데요.

순자와 같은 사상가들이
거기에 대표적인 거죠.

여하튼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근원 혹은 근거는 '하늘'입니다.

결국 하늘의 질서를
인간이 알아낼 수 있고

그 알아낸 그 질서에 따라서
질서에 순응해서,

하늘의 섭리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만

기독교나 이슬람처럼
인격적 주재자로서 인간사에 개입하고

인간의 구체적인 윤리적 규범을
제시하진 않지만

적어도 인간이 자기 속에 내재된
천성을 명확하게 발견하고

이것들이 올바르게 표출되고
표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수양해야 되는 책무를
인간이 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결국 '하늘과 인간의 종교'라고

저희가 처음에 유교를 정의한 이유를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제가 저번 시간에
무교, 무속을 다루면서

하늘과 땅을 인간이 잇는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인간의 의식변형의 체험의 순간에
접속하고 만난다고 얘기했다고 보면

유교 역시도 이 각도는
조금 강조의 포인트는 다르지만

하늘의 천성을 인간이
뇌 구조로 갖추고 있고

이것들을 수행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땅에서

혹은 인간의 행동 규범과
윤리적 체계를 통해서

구현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하늘과 땅, 인간의 삼재라고 하는
천지인삼재가 상응하고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나 유교는 이런 측면에서

이 천성이 인간에게도
구현될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속에서

윤리적 규범 체계 혹은
사회의 운용 원리로서

아주 철저하게
관철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선 시대가 대표적입니다만

이 통치 철학 혹은 공동체 운영의
정치 철학으로서

유교라는 게 굉장히 크게 활용됩니다.

저희가 삼강오륜을 포함해서

소위 인간과 인간의
다양한 관계들을 규율하는

질서와 규범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유교처럼 아주 정밀한

윤리 체계 혹은 행동규범 체계를
갖추고 있는 종교가 없죠.

다시 말하자면, 사회·정치적 측면에

대단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종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저희가
'유교가 과연 종교인가'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 자체가 사회 혹은 정치 질서 체제

그리고 인간과 인간, 부자(父子), 부부
그다음에 부모와 자식 관계에 이르는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 이곳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종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이 신의 개념도 상정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영혼과
사후세계를 다뤘습니다만

죽음 이후의 세계에,

죽음 이후에 무엇이 이뤄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얘기들이

종교의 결정적인 것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상식적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교는
되게 독특한 거죠.

다시 말하자면,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의례가

제사라고 하는
돌아간 조상들을 모시는 의례인데

이 제사를 그렇게 충실하게
3대에 걸쳐서,

보통 3대 동안 지낸다고 합니다만

3대에 걸쳐서 지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죽은 조상들이

사후 세계, 어떤 모양의 사후 세계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에 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태도는
공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공자의 제자가 소위
죽음 이후의 세계라든지

이런 것에 관한 것들을 물으니까
공자의 답변이

‘괴력난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괴력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명확한,

그럼 대신 인간이 답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행동규범이나 윤리적인 측면에
관해서는 우리가 수양해서 알 수 있고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영역이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 혹은
태어나기 이전의 세계와 같은

초자연적인 혹은 보이지 않는
차원에 대한 얘기는

인간이 힘쓸 바가 아니라는
명확한 지침을 주는데

이 지침이 사실
유교 전통 전체로 보면

유교의 종교성 혹은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이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천'(天)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유래한
이 근원에 대한 얘기조차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간이 발견해야 되는 섭리라든지

혹은 자기 행동 규범의 근거라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소위 기독교가 대표적입니다만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들을 창조하고

또 동시에 인간들에게
윤리 규범을 제시하고

인간이 그렇게 그 윤리 규범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서로 관계 맺고 상호작용하는
이른바 인격적 신개념이

굉장히 유교적 천 개념에서는
약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유교가 더더군다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유신론적인 종교

특히 서양 전통에서 비롯된
종교에 비하면

종교적 성향, 혹은 종교적 특성들이
되게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유교 내부에서도
예컨대 천을 인격적으로

혹은 이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주재하는 주재자로서의

천을 강조하는 이 경향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되게 이황도 그러하고 나중에 보면
정약용의 경우에도

특히 천 개념을, 유교적 천 개념을
주재자로서의 천 개념 같은 것으로

확장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이런 흐름이 자연스럽게
청나라에서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수용하고 그다음에
기독교의 하나님을 '천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늘을
주재자의 개념으로 포함시키는

인격적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배경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유교의
종교적 측면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구한말 시점,

특히 동양과 서양이
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서양이 기독교 문명을 앞세운
서양의 과학기술

혹은 서양의 근대화된 문명 앞에서
어쨌든 동양이 힘을 잃고

자기 정체성들을
굉장히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동양인들의 일부가
이런 식의 사고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서구처럼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 인격적 신개념을 가진
종교라는 형태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소위 유교를 더욱더 기독교에 가깝게
종교화시키려고 하는 운동들

이것을 소위 '유교의 공교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청나라가 같으면 강유위 같은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거고요.

우리나라 조선 말 같으면
이병헌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유교를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와 같은
종교의 형태로 재정립하고

이것을 통해서 문명 부흥의
새로운 힘들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강력하게 드러났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교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마치 서양 종교, 혹은 불교처럼

종교로서 실행된다고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체계적으로 종교인들을
배출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주말마다 예배를 드린다든지

혹은 신앙의 대상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할보다는

소위 유교가 아닌 유학,
학문적 전통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수양하고

그다음에 인간과 공동체의
운영 원리라고 하는 측면들을

더욱 강조하는 일종의 사상적 체계로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유교에 대해서
쭉 정리해 봤는데요.

결국 유교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인간의 종교라고
정리를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중간에 신이,

신이라는 개념이라든지
혹은 초자연적인 존재라든지

사후 세계라고 하는 측면이

대단히 약하다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동시에 유학적 전통에서
유교적 경전을 읽을 수 있는

유학자들의 자기 수행 체계로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리고 또 유학의 경전,
유교의 경전들이

소위 과거와 같은
국가 관료가 되는 시험에

기본적인 텍스트로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 자체가 결국 유교가

다른 종교와는 대단히
다른 방식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보면 저희가
대비시킬 수 있는 것이

불교와 도교를 들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개인의 수행을 통해서
지상세계, 사바세계에

윤회를 거듭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 현실 세계를 강조한
유교와 굉장히 큰 차별성을 보여주고요.

도교는 또 죽은 자들과 소통하는 것,
마치 샤머니즘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런 식의 민중적 삶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의 문제에

본격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또 유교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샤머니즘이 도교의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유교와 불교는 성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가 성행하지 못한 이유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이 결론적으로
공자의 가르침에서 유래한 유교는

사회 지향적이고 개인의 수양을

강조하는 사상 체계로서의 특징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더군다나 유교는

인간이 어떻게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는가 하는

세계관 혹은 지성적 관점의 세계관에서
훨씬 더 그 특성이 파악될 수 있는

종교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교와 더불어서

한국 사회에 특히 조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불교라는 종교 전통을 유교 혹은 도교,

샤머니즘과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